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신 경 아¹⁾ · 조 복 희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질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이론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현장은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길러주고 다양한 간호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여 근거 중심의 임상수행능력을 겸비한 간호사를 배출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실습이 이루어지는 임상교육현장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무 현장에 연계하여 간호대상자를 능숙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이 좋은 간호사를 배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학습되어진 지식, 기술, 태도, 판단 등을 간호실무 상황에서 역할을 적절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Barret & Myrick, 1998). 최근 간호학계는 간호학과 인정 평가 시 대학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의 기본간호수행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전문직으로서 법적, 윤리적 실무, 전문직 발전태도 및 실천능력 등 졸업간호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핵심능력(Kim, 2006; Shin, Ha, Shin, & Davis, 2006)을 교육목표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간호평가원(2005)은 전문 간호사의 주요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비판적 사고능력과 간호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문직 표준에 부합되도록 간호 실무를 제공하는 것을 첫 번째 수행항목으로

꼽고 있다. 특히 핵심능력 중 비판적 사고능력은 교육성과의 중요지표로 꼽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이며(Cho, 2005; Chung, 2011; Ko, 2003; Yang et al., 2009) 또한 간호전문직에 대한 확고한 자아개념의 정립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Kang, 2010; Kim, 2011; Seo, 2007).

간호가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간호가치관과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야 한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가 지니고 있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이며 간호의 본질적 가치에 기초한 정신이므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스스로 만족할 때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생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업무의 만족을 주며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Arthur, 1990; Lee, 2008). 이러한 자아개념은 임상교수나 선배간호사 등 모델을 통해 형성된다(Lee, 2008; Livsey, 2009). 따라서 전문직 간호사로 가는 과정에 있는 간호 대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형성은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또한 최근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비판적 사고가 강조되고 있다. 비판적 사고는 사실 혹은 증거에 기초한 판단을 하는 사고로 간호 실무에서 전문적 책임과 질적인 간호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며(Shin et al., 2006) 간호사로 하여금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Feng, Chen, Chen, & Pai, 2010).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것이 비판적 사고성

주요어 : 임상수행능력,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 간호학생

* 2011년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전남과학대학 전임강사

2)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교신저자 E-mail: bhcho@chonnam.ac.kr)

접수일: 2011년 8월 15일 1차 수정일: 2011년 11월 24일 2차 수정일: 2012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12년 1월 6일

항이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적인 성향, 습관(Facione & Facione, 2008)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 간호협의회(2010)는 간호학의 미래를 위한 비전으로 모든 국가의 간호 대학생들은 과학적인 원리를 기초로 융통성 있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전문직의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교육수준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시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적 리더십의 양성을 가장 큰 관심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Zori, Nosek과 Musil (2010)은 간호 관리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기술은 실무환경을 적극적 긍정적으로 만들어 일반간호사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이직률을 줄일 수 있다하여 간호 관리자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성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임상수행능력과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등은 현 시대에 간호사 핵심역량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상관관계성과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하부영역의 요소는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은 간호교육과 실무에 변화를 추구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선행연구들은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비판적 사고성향(Cho, 2005; Ko, 2003; Yang et al., 2009),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Chang, 2011),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자기주도적학습(Yang, 2009), 임상실습만족도(Kang, 2010; Yang, 2009),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Kang, 2010), 실습 량 만족도(Kang, 2010), 대학생 활 만족도, 간호학 선택 동기(Sung, 2010), 간호학 만족도(Chang, 2011; Kim, 2011), 실습 시 대인관계(Chang, 2011; Sung, 2010; Yang, 2009), 성별(Chang, 2011; Sung, 2010), 학제 및 성적(Shin, Lee, & Lim, 2010) 등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임상수행능력의 관련성들은 확인되어 왔지만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의 세변수의 관련성, 그리고 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각각의 하부영역과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변수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성향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하부영역의 변수를 파악하여 간호교육과 실습현장에 질적 향상을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 전남지역에 소재한 2개의 간호전문대학 3학년과 4개의 4년제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두 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이다. G*Power 3 (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사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해 보면,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는 .02, 독립변수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 성향, 일반적 특성 등 총 22개 정도로 감안하면 485명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하여 탈락률 등을 고려해 간호전문대학생 3학년 262명, 4년제 간호학과 대학생 4학년 243명으로 총 505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연구 도구

●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는 Lee 등(1990)이 개발하고 Choi (2005)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개 영역 즉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 등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의 자가보고 도구로 '매우 잘 못한다.' 1점 '매우 잘한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 (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 .948$ 이었으며, 영역별로는 간호과정 .839, 간호기술 .860, 교육/협력관계 .855, 대인관계/의사소

통 .828, 전문직 발전 .833 이었다.

●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는 Arthur (1990)가 개발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도구(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SCNI)를 Sohng과 Noh (1996)가 번안한 것을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Seo (200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 척도의 자가보고 도구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7문항은 부정적 문항(9. 12. 13. 18. 21. 23. 25)으로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ohng과 Noh (199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5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 .855 이었으며, 영역별로는 전문직 실무 .885, 지도력 .666, 융통성 .752, 기술 .753, 만족감 .703, 의사소통 .505 이었다.

● 비판적 사고 성향

Park (1999)이 개발한 도구로 4개의 하위영역인 지적 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지적 정직, 신중성, 객관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5점 척도의 자가보고 도구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8문항은 부정적 문항(3. 7. 9. 13. 17. 18. 19. 20)으로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 .775 이었으며, 영역별로는 지적 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591, 지적 정직 .716, 신중성 .650, 객관성 .738 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설문은 광주 전남지역의 간호대학에 의뢰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허락한 6개의 간호대학에서 시행하였다.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응답한 내용의 비밀성과 연구 참여의 자발성을 명시하였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주었다.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는 훈련된 연구보조원 4명이 본 연구자에게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숙지한 후에 수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지를 회수할 때 연구자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회수율은 100% 이었으며 총 508부를 배부

하였으나 자료처리 과정 중 부적합한 3부를 제외한 505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학년인 3년제 간호 대학생은 262명(51.9%), 4학년인 4년제 간호 대학생은 243명(48.1%)이었고, 성별은 여학생 452명(89.5%), 남학생 53명(10.5%), 연령은 25세 이하 449명(88.9%), 26세 이상 56명(11.1%), 종교는 있는 경우가 54.3% 이었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65.1%로 가장 많았고,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66.3%,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임상실습 량에 대한 만족도, 실습 시 동료와의 관계 역시 만족한다가 각각 60.8%, 67.3%, 67.5%로 가장 많았다. 학업 성적은 평점 3.0-3.9점인 경우가 77.4%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와 실습 시 어려웠던 관계를 다중 응답 처리한 결과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취업을 고려해서가 38.3%, 부모 또는 주변의 권유가 22.7%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18.5%) 봉사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6.9%) 고교 성적(5.8%) 기타(4.2%) 가족 입원 시 받은 인상(2.1%) 해외로 갈 기회가 많음(1.5%)순으로 나타났다.

실습 시 가장 어려웠던 관계는 병동 간호사와의 관계로 56.7% 이었으며 기타(11.2%), 동료학생(8.4%), 환자(7.4%), 환자의 가족(7.2%), 타 부서 직원(4.7%), 실습 지도교수(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 성향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3.17, p=.002$), 대학생활 만족도($F=10.62, p<.001$), 간호학 전공만족도($F=16.87, p<.001$), 임상실습 만족도($F=17.39, p<.001$), 임상실습 량 만족도($F=9.65, p<.001$), 실습 시 동료와의 관계 만족도($F=12.44,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대학생활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량 만족도, 실습 시 동료와의 관계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집단이 만족 한다 또는 불만족 한다는 집단 보다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는 집단이 만족 한다 또는 불만족 한다는 집단 보다, 만족한다는 집단이 불만족 한다는 집단 보다,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t=2.72, p=.007$), 종교가 있는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t=3.12, p=.002$) 유의하게 높았고, 대학생활 만족도($F=25.76, p<.001$), 간호학 전공 만족도($F=53.60, p<.001$), 임상실습 만족도($F=29.04, p<.001$), 임상실습 량 만족도($F=13.02, p<.001$), 실습 시 동료와의 관계 만족도($F=10.3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대학생활 만족도,

Table 1.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Thinking Disposi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Clinical Thinking Disposit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School system (year)	Diploma (3)	262 (51.9)	3.47±0.46	1.38	2.93±0.35	1.17	3.44±0.41	3.72
	Bachelor (4)	243 (48.1)	3.42±0.43	(.169)	2.89±0.31	.242	3.32±0.33	<.001
Gender	Male	53 (10.5)	3.67±0.56	3.17	3.02±0.33	2.72	3.51±0.43	2.93
	Female	452 (89.5)	3.42±0.43	(.002)	2.89±0.33	.007	3.36±0.36	.004
Age (yr)	≤ 25	449 (88.5)	3.44±0.45	-1.04	2.90±0.34	-1.37	3.37±0.37	-0.01
	≥ 26	56 (11.1)	3.50±0.46	.299	2.97±0.28	.170	3.37±0.35	.991
Religion	Yes	274 (54.3)	3.48±0.46	1.73	2.95±0.34	3.12	3.37±0.37	-0.07
	No	231 (45.7)	3.41±0.43	.084	2.86±0.31	.002	3.38±0.37	.945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Unsatisfied ^a	154 (30.5)	3.36±0.44	10.62	2.79±0.34	25.76	3.33±0.37	3.82
	Satisfied ^b	329 (65.1)	3.46±0.44	<.001	2.94±0.31	<.001	3.38±0.36	.023
	Very satisfied ^c	22 (4.4)	3.81±0.45	c>a,b*	3.24±0.31	c>a,b & b>a*	3.45±0.51	c>a*
Satisfaction with nursing	Unsatisfied ^a	76 (15.1)	3.24±0.47	16.87	2.66±0.34	53.60	3.26±0.35	7.96
	Satisfied ^b	335 (66.3)	3.44±0.43	<.001	2.90±0.29	<.001	3.37±0.37	<.001
	Very satisfied ^c	94 (18.6)	3.63±0.43	c>a,b* & b>a*	3.14±0.31	c>a,b & b>a*	3.49±0.37	c>a,b & b>a*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Unsatisfied ^a	145 (28.7)	3.37±0.48	17.39	2.81±0.34	29.04	3.37±0.38	4.54
	Satisfied ^b	307 (60.8)	3.43±0.42	<.001	2.90±0.30	<.001	3.35±0.36	.011
	Very satisfied ^c	53 (10.5)	3.77±0.39	c>a,b*	3.20±0.32	c>a,b & b>a*	3.52±0.38	c>b*
Satisfaction with amount of clinical practice	Unsatisfied ^a	128 (25.3)	3.39±0.45	9.65	2.84±0.32	13.02	3.33±0.36	5.86
	Satisfied ^b	340 (67.3)	3.44±0.42	<.001	2.91±0.32	<.001	3.37±0.36	.003
	Very satisfied ^c	37 (7.4)	3.74±0.53	c>a,b*	3.15±0.40	c>a,b*	3.56±0.45	c>a,b*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clinical practice	Unsatisfied ^a	40 (7.9)	3.33±0.46	12.44	2.79±0.33	10.35	3.26±0.38	11.15
	Satisfied ^b	341 (67.5)	3.40±0.43	<.001	2.88±0.32	<.001	3.34±0.36	<.001
	Very satisfied ^c	124 (24.6)	3.61±0.46	c>a,b*	3.01±0.35	c>a,b*	3.50±0.38	c>a,b*
Grade point average	평점 4.0 이상 ^a	69 (13.7)	3.45±0.46	0.68	2.93±0.30	1.87	3.44±0.40	1.25
	평점 3.0-3.9 ^b	391 (77.4)	3.45±0.45	.508	2.91±0.33	.155	3.36±0.37	.288
	평점 2.0-2.9 ^c	45 (8.9)	3.37±0.43		2.82±0.39		3.35±0.31	

* = Scheffé test

간호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집단이 만족 한다 또는 불만족 한다는 집단 보다, 만족한다는 집단이 불만족 한다는 집단 보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임상실습 량 만족도, 실습 시 동료와의 관계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집단이 만족 한다 또는 불만족 한다는 집단 보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3년제 간호 대학생 이 4년제 간호 대학생 보다($t=3.72, p<.001$),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t=2.93, p=.004$) 유의하게 높았고, 대학생활 만족도 ($F=3.82, p=.023$), 간호학 전공 만족도($F=7.96, p<.001$), 임상실 습 만족도($F=4.54, p=.011$), 임상실습 량 만족도($F=5.86, p=.003$), 실습 시 동료와의 관계 만족도($F=11.1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집단이 불만족 한다는 집단 보다 비판 적 사고성향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간호학 전 공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집단이 만족 한다 또는 불 만족 한다는 집단 보다, 만족한다는 집단이 불만족 한다는 집 단 보다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집단이 만족한 다는 집단 보다, 임상실습 량 만족도와 실습 시 동료와의 관 계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집단이 만족한다, 불만족 한다는 집단 보다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 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 성향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 적 사고성향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5점 이었 고, 영역별로는 전문직 발전 3.57점, 교육협력관계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이 각각 3.45점, 간호기술 3.43점, 간호과정 3.36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2.91점 이었고, 영 역별로는 의사소통 3.11점, 전문직 실무 2.89점, 만족감 2.84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37점 이었고, 영역별로는 지적정직 3.70점, 신중성 3.37점, 지적열정과 건전화회의성 3.26점, 객관성 3.00점의 순 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 성향의 관계

Table 2. Degree of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Thinking Disposition

Variables	Mean ±SD	Min-max	Reference range
Clinical competency	3.45±0.45	2.22-4.89	1-5
nursing process	3.36±0.48	1.64-5.00	1-5
nursing skill	3.43±0.54	1.73-5.00	1-5
teaching/coordinating	3.45±0.55	1.63-5.00	1-5
interpersonal relationship	3.45±0.61	1.50-5.00	1-5
communication	3.45±0.61	1.50-5.00	1-5
professional development	3.57±0.56	2.00-5.00	1-5
Professional self-concept	2.91±0.33	1.78-3.93	1-4
professional practice	2.89±0.39	1.44-4.00	1-4
leadership	2.71±0.51	1.00-4.00	1-4
flexibility	2.95±0.39	1.57-4.00	1-4
skill	2.95±0.45	1.20-4.00	1-4
satisfaction	2.84±0.52	1.43-4.00	1-4
communication	3.11±0.49	1.50-4.00	1-4
Clinical thinking disposition	3.37±0.37	2.25-4.80	1-5
intellectual compassion/ sound skepticism	3.26±0.47	2.00-5.00	1-5
intellectual honesty	3.70±0.54	2.00-5.00	1-5
prudence	3.37±0.57	1.75-5.00	1-5
objectivity	3.00±0.70	1.00-5.00	1-5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 적 사고성향 간의 하부영역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간호대학생 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r=.586, p<.001$), 비판 적 사고 성향($r=.421, p<.001$)과 모두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비판적 사고 성향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483, p<.00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 적 사고 성향 정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비판적 사고 성향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 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간호전문직 자아개 념 및 비판적 사고성향과 대상자의 특성에서 유의하게 차이 가 나타난 변수인 성별,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량 만족도, 실습 시 동료와의 관 계 만족도를 회귀분석 식에 투입한 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Table 4>. 이 중 명목척도는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전환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상관계수가 0.8 미 만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 분석에 이용하였다. 케이스 진단 시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sub category)

	Cc	Cc1	Cc2	Cc3	Cc4	Cc5	Psc	Psc1	Psc2	Psc3	Psc4	Psc5	Psc6	Ctd	Ctd1	Ctd2	Ctd3	Ctd4
Cc	1																	
Cc1	.824 <.001	1																
Cc2	.865 <.001	.678 <.001	1															
Cc3	.844 <.001	.587 <.001	.653 <.001	1														
Cc4	.799 <.001	.554 <.001	.599 <.001	.661 <.001	1													
Cc5	.813 <.001	.550 <.001	.580 <.001	.646 <.001	.616 <.001	1												
Psc	.586 <.001	.470 <.001	.509 <.001	.436 <.001	.484 <.001	.538 <.001	1											
Psc1	.612 <.001	.501 <.001	.543 <.001	.452 <.001	.473 <.001	.559 <.001	.884 <.001	1										
Psc2	.475 <.001	.393 <.001	.411 <.001	.347 <.001	.374 <.001	.438 <.001	.708 <.001	.838 <.001	1									
Psc3	.576 <.001	.470 <.001	.520 <.001	.429 <.001	.444 <.001	.516 <.001	.832 <.001	.929 <.001	.655 <.001	1								
Psc4	.583 <.001	.477 <.001	.519 <.001	.432 <.001	.436 <.001	.540 <.001	.815 <.001	.907 <.001	.634 <.001	.790 <.001	1							
Psc5	.319 <.001	.247 <.001	.288 <.001	.226 <.001	.303 <.001	.277 <.001	.749 <.001	.417 <.001	.276 <.001	.412 <.001	.411 <.001	1						
Psc6	.135 <.002	.089 <.047	.053 <.233	.129 <.004	.158 <.001	.163 <.001	.376 <.001	.085 <.056	.056 <.207	.085 <.056	.075 <.094	.254 <.001	1					
Ctd	.421 <.001	.329 <.001	.293 <.001	.364 <.001	.332 <.001	.444 <.001	.483 <.001	.494 <.001	.448 <.001	.451 <.001	.428 <.001	.204 <.001	.257 <.001	1				
Ctd1	.389 <.001	.345 <.001	.284 <.001	.292 <.001	.301 <.001	.395 <.001	.384 <.001	.426 <.001	.461 <.001	.362 <.001	.332 <.001	.145 <.001	.126 <.004	.723 <.001	1			
Ctd2	.318 <.001	.210 <.001	.230 <.001	.297 <.001	.275 <.001	.328 <.001	.375 <.001	.330 <.001	.241 <.001	.328 <.001	.311 <.001	.198 <.001	.293 <.001	.743 <.001	.295 <.001	1		
Ctd3	.388 <.001	.315 <.001	.263 <.001	.350 <.001	.307 <.001	.394 <.001	.372 <.001	.434 <.001	.347 <.001	.413 <.001	.400 <.001	.129 <.004	.073 <.101	.706 <.001	.416 <.001	.352 <.001	1	
Ctd4	-.040 <.367	-.049 <.270	-.054 <.229	-.013 <.771	-.058 <.192	.013 <.766	.120 <.007	.089 <.047	.107 <.016	.065 <.145	.073 <.101	.045 <.310	.180 <.001	.479 <.001	.078 <.082	.224 <.001	.206 <.001	1

Cc=Clinical competency; Cc1=nursing process; Cc2=nursing skill; Cc3=teaching/coordinating; Cc4=interpersonal relationship/communication; Cc5=professional development; Psc=Professional self-concept; Psc1=professional practice; Psc2=leadership; Psc3=flexibility; Psc4=skill; Psc5=satisfaction; Psc6=communication; Ctd=Clinical thinking disposition; Ctd1=intellectual compassion/sound skepticism; Ctd2=intellectual honesty; Ctd3=prudence; Ctd4=objectivity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y

Variable	B	SE	β	t	p	AdjR ²	F	p
Constant	1.06	0.16		6.76	<.001	.462	71.89	<.001
Professional self-concept (professional practice)	0.57	0.05	.501	12.75	<.001			
Clinical thinking disposition (prudence)	0.13	0.03	.171	4.38	<.001			
Clinical thinking disposition (objectivity)	-0.09	0.02	-.142	-4.14	<.00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	0.16	0.05	.112	3.28	.001			
Professional self-concept (communication)	0.08	0.04	.100	2.94	.003			
Clin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llectual compassion/sound skepticism)	0.08	0.03	.086	2.23	.026			

절대 값 3보다 큰 이상점 5개(case 32, 73, 253, 469, 471)를 제거한 후 500명을 대상으로 단계선택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899로 검정통계량 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없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703 - .948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06 - 1.42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선형성(Linearity),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고, 특이 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특이 값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상수행능력과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하위영역 중 전문직 실무($\beta=.501, p<.001$) 이었고, 비판적 사고 성향 중 신중성과 객관성, 실습에 대해 만족 (매우 만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중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성향 중 지적열정과 회의성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총 설명력은 46.2%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간호교육과정과 실습교육체계에 반영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중상 정도의 수준이다. 하위영역에서는 전문직 발전은 높게 간호과정과 간호기술은 낮게 나왔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조사한 Choi (2005)의 연구결과, Kang (2010)의 연구결과, Chung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임상 변화로 환자권리신장과 질적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실습은 관찰위주와 단순영역의 기술적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 임상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최소화 되었으며(Chung, 2011; Cho, 2005; Yang, 2009) 환자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하는 간호과정 또한 실습현장에서 학생에게 권한부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확대와 기본간호 수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실습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또한 환자 대상의 실습을 대체하면서 간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량 만족도, 실습 시 동료와의 관계

만족도에 따라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 만족도(Kang, 2010), 간호학 전공 만족도(Chung, 2011; Cho, 2005; Kang, 2010; Ko, 2003), 임상실습 만족도(Cho, 2005; Kang, 2010; Ko, 2003; Yang, 2009), 동료와의 관계만족도(Chung, 2011; Kang, 2010; Ko, 2003; Yang et al., 2009)등의 연구에서도 임상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Kim과 Byeon(Shin et al., 2010)에서 재인용) 학제와 성적이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수행능력의 예측인자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수의 연구 결과들과 함께 종합해보면 간호학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 동료와의 관계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의 관련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2.91점으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Kang (2010)의 연구결과, Seo (2007)의 연구결과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상정도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나타냈다. 그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 한 Sohng과 Noh (1996)의 연구결과보다는 높은 수준의 결과가 나왔으나 Arthur (1990)의 연구결과보다는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인 가치관의 차이, 또는 의료체계의 차이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추후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은 의사소통은 높게 만족감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높은 영향요인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임을 연구한 Kang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비교 연구한 Song (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만족감이 낮게 나와 일부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간호과의 최고학년으로 교육과정에서 이미 의사소통 관련과목을 이수한 상태이며 실습을 두 학기 이상 경험한 학생들이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태도는 열린 마음으로 환자를 수용하고 공감하려는 준비는 되어있는 반면 실습현장에서 제한된 실습으로 인한 전문직 업무의 즐거움과 만족감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간호에 대한 사명감과 가치보다 취업위주의 학과선택(38%)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Song (2010)의 연구에서 자신의 의지로 간호과를 지원한 학생이 취업보장의 이유로 간호과를 지원한 학생보다 전문직 자아개념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교육자나 간호전문가들의 사고와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발전 성숙 한다고 보고하였다(Kang, 2010; Livsey, 2009; Seo, 2007; Sohng & Noh, 1996). 따라서 간호전문직에 대한 정체성은 자신 스스로가 갖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실습현장의 지도력

이 강한 실습지도교수와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선배간호사들에 의한 개별화되고 체계적인 실습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규수업 외에 임상전문 간호사 특강 같은 전문 간호사들의 의식 있는 목소리 등을 통한 전문직 자아개념 증진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높았으며, 대학생활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량 만족도, 동료와의 관계 만족도에 따라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Kang, 2010; Soe, 2007; Sohng & Noh, 1996), 종교(Kang, 2010, Sohng & Noh, 1996), 대학생 생활 만족도(Kang, 2010), 임상실습 만족도(Kang, 2010), 임상실습 량 만족도(Soe, 2007), 동료와의 관계만족도(Kang, 2010) 등의 연구에서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특히 성별, 종교, 대학생활 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동료와의 관계 만족도 등은 Kang (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여 주었으나 학업성적과는 무관하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37점으로 나왔으며 하위영역은 지적정직은 높게, 객관성은 낮게 나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Ko (200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에 중요한 영향요인을 교수방법과 학습 환경(Cho, 2005)이라고 보았을 때 교과서 중심 진도위주의 지식전달차원 교수방법과 학습 환경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즉, 간호 대학생들은 3년 또는 4년의 교육을 받은 후 국가고사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교과서중심 지식전달차원의 교육환경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왜곡하지 않는 지적정직은 교과서와 학습현장에서 익숙하게 익힌 반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결론으로 도출해내는 능력은 익히지 못한 학습 환경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와 성향으로 임상실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3년제 간호 대학생이 4년제 간호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량 만족도, 실습 시 동료와의 관계만족도에 따라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Chang, 2011),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Cho, 2005; Yang, 2009) 임상실습 만족도(Ko, 2003), 동료와의 관계만족도(Yang, 2009) 등의 연구에서도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특히 남학생, 간호학 전공 만족도, 동료와의 관계 만족도 등은 비판적 사고성향과의 관련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3년제 간호 대학생이 4년제 간호

대학생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온 것은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이나 철학과목 등을 이수 한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다고 한 Yang과 Jung (2004)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교육과정과 관련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과목의 변수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교과목 또는 교과과정과 관련된 비판적 사고성향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 모두에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 직업적 안정성 보장, 간호의 양성성의 인식변화 즉, 남자간호사의 추진력, 신체적 강함, 대담함, 역동성, 응급상황의 대처 능력 등과 같은 간호현장에서의 남성성의 긍정적 수용과 성의 상호보완적 역할의 인식변화 등과 같은 간호직의 특성이 부각되면서 확실한 동기와 강한 성취욕을 가지고 간호학에 입문하는 남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Son, Koh, Kim, Moon, & Yi, 2003).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성향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정도도 높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정도도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하위영역 중 전문적 실무($B = .501$)가 가장 영향력이 높았고 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 (2010)의 연구와 정신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Jung 과 Lee (200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 하위영역 중 신중성, 객관성, 지적열정과 회의성이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중성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 한 Park과 Kim (2009)의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나와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실습에 대한 만족도 역시 임상수행능력의 주요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Kang (201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총 설명력은 46.2%이었다. 임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실무능력을 갖춰 신중하게 사고하고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의사소통하고 결정함으로써 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은 전문적 실무, 비판적 사고능력, 실습만족도를 높이는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전문적 실무와 비판적 사고성향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

한 교수학습 전략 및 질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문직 자아개념과 비판적 사고 성향은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전문직 자아개념 중 전문직 실무,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성향 중 신중성, 객관성, 지적열정과 회의성, 실습 만족도 (매우만족) 임을 확인하였다. 그 중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수는 전문직 자아개념 중 전문직 실무이므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직 실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간호 대학생들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실습현장에서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선배간호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역할정체감이 형성될 것이며 좀 더 교육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별화된 실습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수정예의 실습전담교수와 잘 훈련된 프리셉터를 활용한 교육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현장에서는 임상실습의 제한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 간호 수기술 인증제, 표준화 환자 활용 및 시뮬레이션 활용 교육 등을 통한 교내실습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주와 전남의 일부 3년제 간호 대학생 3학년 262명과 4년제 간호 대학생 4학년 243명, 총 505명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2011년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45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2.91점,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37점으로 나타났다.
- 임상수행능력은 전문직 발전이 가장 높고 간호과정이 가장 낮았으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의사소통이 가장 높고 만족감이 가장 낮게, 비판적 사고성향은 지적정적이 가장 높고 객관성이 가장 낮았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비판적 사고성향과 모두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가지며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

었다.

-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하위영역 중 전문직 실무($\beta=.501, p<.001$)이었고, 비판적 사고 성향 중 신중성과 객관성, 실습에 대해 만족(매우만족),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중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성향 중 지적열정과 회의성 순이었다.
-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은 높으며,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전문직 자아개념 중 전문직 실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전문직 자아개념 중 전문직 실무가 임상수행능력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전문직 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 및 교수법을 개발, 적용 후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임상수행능력 측정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평가도구의 개발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References

- Arthur, D. (1990).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Master of Educational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Newcastle.
- Barret, C., & Myrick, F. (1998).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 364-371.
- Chang, S. K.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 71-78.
- Cho, H. S. (2005).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 222-231.
- Choi, M. S.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Facione, N. C., & Facione, P. A. (2008).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judgment*. Retrieved July 17, 2011, from <http://www.insightassessment.com/articles.html>.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 Feng, R. C., Chen, M. J., Chen, M. C., & Pai, Y. C. (2010). Critical thinking competence and disposition of clinical nurses in a medical center. *The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8, 77-87.
-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10). *About ICN: Our vision*. Retrieved October 25, 2011, from <http://www.icn.ch/about-icn/>

- icns-vision-for-the-future-of-nursing.
- Jung, S. M., & Lee, K. O. (2003). Relationship betwee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role performance of the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 402-414.
- Kang, H. O. (2010).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 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im, M. S. (2011).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 159-167.
- Kim, M. W. (2006). Development of objectives of nursing clinical education based on the nursing core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 389-402.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2005). *Advanced practice nurse*. Retrieved September 24, 2011, from <http://Kabon.or.kr>
- Ko, K. J. (2003).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 Lee, S. H.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 10-20.
- Livsey, K. R. (2009). Structural empowerment and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behaviors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6*, 1-16
- Lee, W. H., Kim, C. J., Yoo, J. S., Hur, H. K., Kim, K. S., & Lim, S. M. (1990).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Yeonsei Nursing, 13*, 17-29
- Park, J. A., & Kim, B. J. (200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 840-850.
- Park, S. H. (1999). *The effects of the program for the improvements of college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Seo, W. H. (2007).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Shin, S. J., Ha, J. Y., Shin, K. R., & Davis, M. K. (2006). Critical thinking ability of associate, baccalaureate, and RN-to-BSN student in Korea. *Nursing Outlook, 54*, 328-333.
- Shin, Y. W., Lee, H. J., & Lim, Y. J. (2010). Predictors of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 37-47.
- Sohng, K. Y., & Noh, C. H. (1996).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 94-106.
- Son, H. M., Koh, M. H., Kim, C. M., Moon, J. H., & Yi, M. S. (2003). The male nurse's experiences of adaptation in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 17-25.
- Song, H. R. (2010).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ing perception i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 Sung, M. H. (2010). Cor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achieve,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diploma and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7*, 90-98.
- Yang, J. J. (2009).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 159-165.
- Yang, S. H., Lee, O. C., Lee, W. S., Yoon, J., Park, C. S., & Lee, S. J. (2009). Critical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3 nursing colleges with different education method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 149-158.
- Yang, S. Y., & Jung, D. Y. (2004).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bout student nurse.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6*, 156-165.
- Zori, S., Nosek, L. J., & Musil, C. M. (2010). Critical thinking of nurse managers related to staff RNs' perceptions of the practice environmen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2*, 305-313.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Shin, Kyung-Ah¹⁾ · Cho, Bok-Hee²⁾

1)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Chonnam Techno College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505 nursing students, 262 associate degree nursing students and 243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all in schools in Gwangju or South Jeonla Provinc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25 to May 27, 2011. Statistical processing was performed with SPSS 18.0 Version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Result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clinic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most effective factor for clinical competence was professional practice in professional self-concept, followed by prudence and objectivity i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 total explanation of clinical competence was 46.2%.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confirm that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have an effect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Accordingly in order to improve clinical competen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actice environment and educational curriculum that enhance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linical Competence, Self Concept, Thinking, Nursing Student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2011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 Bok-Hee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 Hok-Dong, Dong-Gu, Gwangju, 501-746, Korea

Tel: 82-62-220-4953 Fax: 82-62-227-4009 E-mail: bhcho@chonnam.ac.kr